

투데이 칼럼

의자 임자가 따로 있다

회 전의자를 돌리며 앉아서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은 남자들의 로망이었을까.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임자가 따로 있다'라면 주인공이지. 60년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회전의자'라는 노래의 앞 구절이다. 그러나 의자에는 임자가 분명히 따로 있다.



박 순희 수필가

그릇이 사람의 됬됨이나 능력과 인품을 은유한다면 의자는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한다. 사람의 그릇은 훈련과 교육으로 수양되어 지지만 지위는 요건에 맞는 수준과 운칠기삼의 영향을 받는다.

의자를 상징하는 이름도 다양하다. 임금의 자리는 용상이고 보좌이며 옥좌다. 이집트의 박물관에 9월에 즉위한 투탕카멘왕의 황금의자는 유사이래의 권좌를 대변한다.

용상에 앉아야 탄핵성의 군주가 되어 단조백관과 만군을 거느린다.

비단 임금의 자리뿐만 아니다. 왕조 시대에서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리는 그 자리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만큼의 권력을 누린다. 아직도 계급사회의 의자는 너무나도 엄혹해서

자리가 정해져 있다.

자리가 사람을 대변한다. 그 권좌에 앉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빛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증명한다. 그 위치에 오르게 되면 사람이 그 열듯해 보인다. 그 위치 그 자리에 걸맞게 노력한다는 뜻 일 것이다.

권좌의 주인공이 되면 사람이 따르고 예우가 달라진다. 권좌에 올랐을 때 권위를 약용해 권력을 남용하는데서 부작용이 생긴다. 자리에 걸맞게 자기관리에 철저 한다면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할리 없다.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에 앉는다 해도 한 시적이라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결국 일시적이고 기간 제에 불과한 것을 영원한 권좌로 착각한다.

누구나 좋은 자리 빛나는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있다. 단적인 예로 행사가 끝나고 기념 촬영 할 때보면 앞자리 의자에는 회장 단체장 수상자 등 주인공들이 앉을 자리가 정해져있기 마련이다. 간혹 상석의 유혹에 분수를 망각한 사람들이 있어 빈축을 사곤 한다.

성경말씀에도 '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눅14:7-11) 인간의 미덕이 겸손함에 있음을 곱씹어보게 되는 경우이리라.

회전의자 노래 끝부분에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고 외친다. 선거철이 되면 출세를 하려고 혈안이 된다. 국회의원 지자체장이나 시, 도의원 선거 날이 가까울수록 자리다툼이 치열하고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의자의 임자는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날마다 의자를 닦고 바르게 앉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복지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라고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지만 표면적 이유일 뿐 속셈은 권좌의 세도와 탐욕으로 속이 시커멓다.

우리나라 선거 풍토가 언제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진정한 애국애족의 정신의 정의로운 지도자, 학생과 봉사자의 일념으로 선진복지국가의 정책 대결로 선거유세를 하는 인물을 기대하는 건 요원한 꿈일까?

사설

상산고 정원 못 채운 이유

일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일반고 전환 문제가 차질을 빚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백지화됐다. 전임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자사고 등의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전주 상산고의 경우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상산고는 지난 2002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고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고교의 유형을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자사고를 존치하는 대신, 지역 인재와 사회

통합전형으로 각각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산고는 그동안 입학 정원의 20%를 지역 인재, 그리고 6%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아왔다.

결국 사회통합전형에서 14%를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사회통합전형은 모두 미달됐다.

상산고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통합전형을 20%까지 늘린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학교의 재정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상산고는 재정 결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지난해 전국 22개 자사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학교가 사회통합전형에서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했다. 일반고 전환 문제는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기 바란다.

2024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의미

최근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2024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세계출정식'이 열렸다. 경기도 파주 일진각 평화의 종각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칠레를 비롯한 남미 청년들은 피스로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10개 나라에서 온 세계대표단과 세계 대학생 300여명이 자리했다.

참가자들은 지구촌 평화시대를 위한 피스로드 비전에 공감했다. 통일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평화의 종을 쳤다. 평화의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에 평화를 기원하는 리본을 걸기도 했다.

2013년 시작된 피스로드 160개 국가가 참여하는 행사가 됐다. 2015년엔 칠레 산티아고와 아프리카 희망봉,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동시에 출발했던 피스로드가 마지막 서울에서 모여 종주식을 가졌다.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세계 160개국에 동참하는 인류 평화 프로젝트를다. 2024 올해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이 이어지고 대남 기구 정리에 따른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한반도 평화가 바로 세계 평화로 연결된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 한반도의 화합과 평화의 땅으로 부활하는 데 밀거름이 되어야 할 때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세계인의 동참이 절실하다. 이번 행사에서 남미 청년들은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통일의 분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가자지구 배경, 사진 놀이에 빠진 이스라엘 여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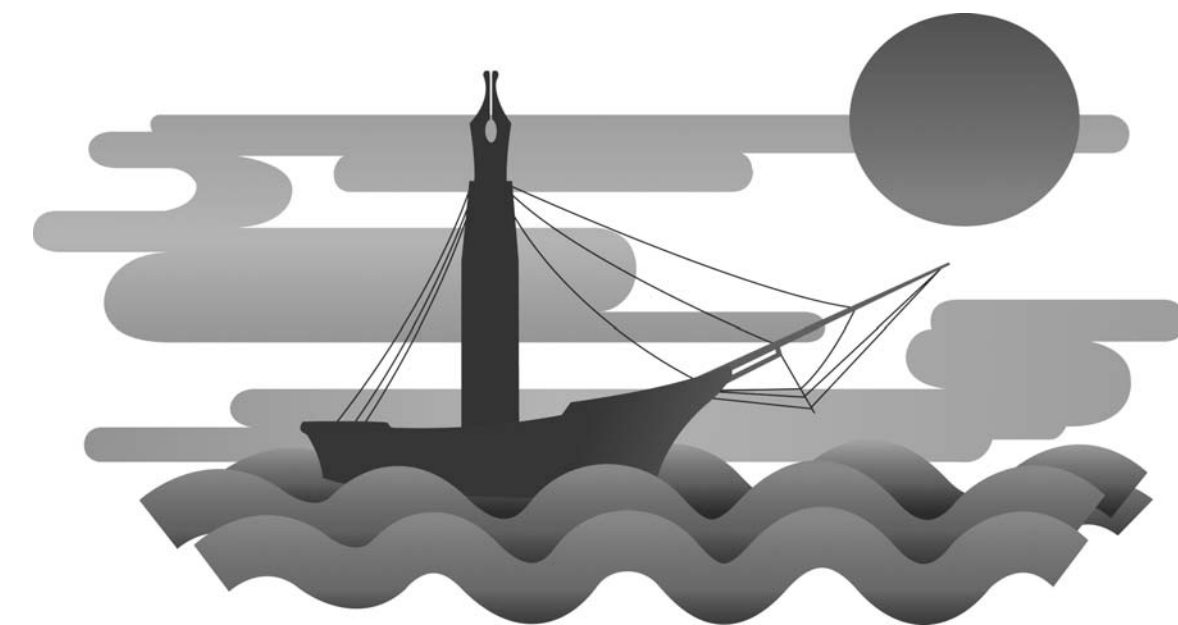


19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국경 부근에서 밝은 모습의 이스라엘 여군들이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날' 기념, 전투 재연하는 군인들



19일(현지시각) 미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넌에서 미국 제3 보병연대 소속 알파 중대원들이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생일인 22일과 대통령의 날 기념식 중 전투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미국은 70년대 중반까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생일인 2월 22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이후 모든 전임 대통령을 기념해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지정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